

일제잔재 털고 전통 찾다 범어사 13일부터 종합정비 들어가

일제의 왜곡, 훼손으로 한국 전통 사찰 고유의 멋을 잃었던 천년고찰 범어사가 광복 66년 만인 2011년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범어사의 민족문화 복원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인 '범어사 종합 정비 계획'이, 8월 13일 일제잔재의 상징물이던 조선총독부 표지석 제거와 3층석탑(보물 제250호)을 원형대로 복원하기 위한 난간석 해체를 실행함으로써 시작됐다.

범어사는 한국불교건축의 진수를 간직한 대표적인 사찰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람 배치와 문화재 등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는 일제에 의해 크게 훼손·왜곡됐다.

이번 왜색지우기 작업은 13일 조선총독부 표지석 제거와 3층석탑을 둘러싼 일본식 난간 해체를 시작으로 최후에 일본식으로 기단부를 세워 우리 고유의 미학이 사라진 3층석탑을 원형 복원한다. 대웅전을 정면에서 가로막은 일본식 보제루를 누각 형태로 복원하고, 일본식 석축 쌓기와 축성법으로 지어진 범어사 외벽 등도 철거하고 재건할 예정이다.

대웅전 앞마당의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금송 세 그루와 천왕문·불이문 사이에 심은 일본 편백나무·삼나무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우리 소나무로 바꿔 심을 계획이다.

본래의 가람 배치는 전통 불교건축 양식의 상·중·하단의 3단 구성의 틀을 지켰고, 선교양종(禪敎兩宗)의 교리를 적용한 체용설(體用說)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원칙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사찰을 이후 중·장건하는 과정이나 크고 작은 불사를 행할 때에도 철저히 지켜져, 일제강점기 이전 범어사의 가람 배치는 전통불교건축의 고유한 형태를 지니었다.

범어사 종합정비계획 연구책임자 서치상 교수(부산대)는 "범어사의 가람배치를 한국불교 전통건축 양식에 맞춰 복원하는 일은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한국 사찰양식을 후대에 바르게 전하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일제잔재청산이 마무리 되면 2014년까지 총 예산 200억원 규모의 '범어사 종합 정비 계획' 2단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지원 기자

“중생들 안식처로 만들 터”

부산 최초 천태종 사찰 광명사 대법당 상량식

부산 최초 천태종 사찰인 광명사(주지 화산)의 종합불교회관인 대법당이 올 연말 낙성을 앞두고 대들보를 힘껏 올렸다. 광명사는 8월 15일 오전 11시부터 현재 불사가 한창인 대법당 3층 강당에서 종중 도용 스님, 총무원장 정산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및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량식을 여법하게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은 종의회장 도산 스님의 상원원각 대조사 범어 봉독, 연희보고, 주지 화산 스님의 개식사, 종정 도용 스님의 범어, 총무원



8월 15일 열린 광명사 대법당 상량식에서 대들보를 올리고 있다.

2008년 6월 6일 첫 삽을 뜨고, 부지 5.775㎡(약 1750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670㎡(약 1415평) 규모의 종합불교회관으로 연말 낙성을 목표로 신축 중이다.

박지원 기자

대입합격 기원 ‘다채’

부산 지역 사찰들 기도법회·입시특강 등 호응

2009학년도 대입수능을 100일 앞두고 부산지역 각 사찰에서 합격과 고득점 획득, 수험생의 건강을 기원하는 백일기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범어사(주지 정여), 관음사(주지 지현), 내원정사(주지 정련), 대광명사(주지 목종), 동명불원(주지 정산), 미타선원(주지 하림), 삼광사(주지 화산), 선암사(주지 원범), 안국선원(선원장 수불), 흥법사(주지 심산), 해원정사(주지 원해) 등 부산 각 사찰들은 8월 5일부터 수능 하루 전인 11월 11일까지 일제히 대학입시백일기도에 들어갔다.

범어사는 백일기도에 동참한 300여 명의 수험생 학부모에게 주지 정여 스님이 직접 쓴 '하연 된다. 낚' 족자를 증정해, 공부하는 학생의 책상 앞에 걸어둘 수 있도록 했다.

주지 정여 스님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침착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를 한다면 마음 자체만도 원력이 되고 신심"이라며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아들, 딸의 발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보살심을 갖고 기도하면 앞장 기도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주지 지현 스님은 백일기도와 백중기도를 겸해 매일 오전 11시 주지 지현 스님의 특별법문이 마련된다.

내원정사는 매일 오후 2시 스님의 집전으로 백일기도를 올린다.



8월 19일 동명불원에서 열린 입시특강에서 메가스터디 이석록 강사가 올해의 입시 전략과 2010년 대입경향분석을 설명하고 있다

동명불원은 학업성취를 위한 백일기도와 함께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특강을 마련한다. 8월 19일 오후 1시부터 대웅전에서 서울 메가스터디 인기강사 이석록씨를 초청해 2010년 대입경향분석 및 전략을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어 28일 오후 1시부터 흥승 스님을 강사로 수험생을 위한 건강 사찰음식 강좌를 열고, 수험생에게 적합한 건강음식 요리법 및 수능일 도시락 만들기 특강을 마련한다.

9월 16일과 30일에는 주지 정산 스님이 직접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호흡법으로 요가와 단전호흡 등의 수행법을 수험생에게 직접 지도한다. 또 11월 9일 오후 9시부터 합격 기원 촛불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용두산 미타선원은 '경전 읽는 관세음보살상'을 극락전에 모시고 백일기도를 올린다. 수능일인 11월 12일 오후 1시부터 대웅전에서 서울 메가스터디 인기강사 이석록씨를 초청해 2010년 대입경향분석 및 전략을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어 28일 오후 1시부터 흥승 스님을 강사로 수험생을 위한 건강 사찰음식 강좌를 열고, 수험생에게 적합한 건강음식 요리법 및 수능일 도시락 만들기 특강을 마련한다.

한편, 중립학교인 **해동고등학교**(교장 김진규)는 오전 11시 50분부터 '수능 100일 법회'를 봉행했다. 교내에 마련된 법당에 학생 간부 및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학생회장의 발원문 낭독, 교장선생님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각 교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며 전교생이 법회에 동참했다. 법당에서는 수능일까지 매일 아침 백일기도가 봉행돼, 03 수험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지원 기자

점수 따기 위한 봉사 이젠 '옛말'

두승복지관 청소년 사회복지학교 운영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학교가 문을 열었다.

두승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맹자)은 8월 12~14일 사하구 내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복지학교를 운영했다.

기존의 자원봉사에 국한된 사회 복지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학교는 사회복지 기본 이론 및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청소년에게 올바른 사회복지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커리큘럼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자원봉사활동, 장애인복지, 학교폭력 등의 순으로, 실제 노인용품 착용하고 노인이 돼보는 노인대학 역할극 등 실습을 통한 살아있는 체험학습 위주로 진행됐다.

조영아 사회복지사는 "일반적인 청소년 등의 봉사활동이 아닌,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이론교육과 체험수업, 복지관 이용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과정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명문종가의 미학 강좌

영광전통예절미학회

영광전통예절미학회(회장 이경순)는 9월 한 달간 한국 명문종가에 담긴 미학을 찾아 나선다.

"작가 이연자가 만나본, 114집의 명문 종가를 찾아서" 특별강좌는 1강 '거대한 버팀목 한국의 종가', 2강 '거대한 버팀목 한국의 종가', 3강 '아름다운 예절, 종가의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강좌는 9월 7일과 14일, 21일 등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영광도서 4층 문화사랑방에서 열린다. (051)816-9500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 회장 효선 스님

‘눈높이 법회’로 새싹포교 앞장

"불교와의 인연은 빠를수록 좋아요. 그 인연의 향기가 밴 어린이들은 자라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않아 자연스럽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 부산지구 회장 효선 스님(공덕원 주지·사진)의 화두는 단연 '어린이 포교'다.



스님은 "어린이 포교는 불교의 미래"라는 일념으로 그간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한 길을 끊임 없이 걸어왔다.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이 생각보다 많아 이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다니니, 결국 훌륭한 지도자를 기르는 것이 참된 불자의 씨앗을 싹틔우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2008년 대불어 부산지구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효선 스님은 역량 있는 어린이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다. 양질의 연수프로그램을 정기 운영해 한 번 졸업하면 끝이 아닌,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 어린이들에게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가르치게 했다. 또 지도자 간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정립해 베테랑 지도자들의 노하우와 신예 지도자들의 재기발랄한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어린이법회를 어떻게 개설하고 운영해야 할지 몰라서 뜻은 있으나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제 조계종이 아닌 소수종단 사찰에서 어린이법회를 개설하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봄이면 전국 각지의 대불어 지구에서 연꽃문화제를 열고, 가을에는 전래놀이한마당, 겨울에는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여름에는 부산에서 전국의 어린이법회 및 어린이법회에 소속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대규모 여름불교교회를 개최하려고 하던 중 신종 인플루엔자를 고려해 취소하게 돼 정말 아쉬웠습니다."

최근 절에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지기 시작했다. 그나마 법회를 여는 사찰도 어린이 불자들이 줄어들었다. 낮은 출산율도 문제지만, 스님이나 부모가 어린이포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어린이들은 집을 떠나 학원과 PC방으로 향하고 있다.

"요즘 어린이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흡수하는 대중문화는 전혀 새롭잖아요. 지금의 법회 방식은 어린이들에게 그만큼의 매력을 줄 수 없잖아요. 최근에는 놀도 시행으로 새롭게 각광받는 일반적인 자연체험학습과 농촌문화, 전통문화체험 등에 불교색을 가미한다면 어린이들에게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어린이지도자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효선 스님은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직장인이어서, 전근을 가게 되면 사찰의 어린이법회를 그만둬야 하고, 또 모자란 운영비에 사비를 털어 어린이법회를 운영하기에 부담이 커 그만두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합니다. 지도자 스스로를 보시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사찰에서도 적극 후원하려는 의지와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진시황제가 비밀시 활용하던 천비술서! 금쇄옥약시의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쳐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 * 귀장술 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 12신궁의 금전재물은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인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액운 차귀탈 정단법
-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 소송·판사사의 승패 판단법
-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현상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착해론
-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법

글·백초스님
상·하권/720면/정가 각20,000

심자성 래정비법 전수생모집

사주를 뽑지않고, 자신이 갖고 들어온 점괘로 쉽게 푸는 법

1:1강의 저자 백초스님 직강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숙성반 인기 교육중 (매일 예약가능)